

이 원고는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각종 職業病이 다발하였던 1960년대 日本에서 일어났던 事例들을 日本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와 東京타임스가 편집한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고될 것들이 많아 요약하여 연재하는 것이다

알아주지 않는 腰痛症

編輯室

現代人の病으로 불리우는 腰痛症은 작업의不合理化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64년 東京올림픽 직후 약 130명의 腰痛症환자가 羽田國際空港에서 작업하는 AGS 運輸會社에서 발생하였다.

勞組에서는 腰痛鬪爭이 시작되어 종업원은 銀座, 國會주변을 프랑카드를 들고 템포하였다. 그 결과 회사측은 「腰痛은 業務上에 의한 것으로서 기업내의 직업병으로 취급한다」고 인정하였다.

AGS社는 航空機의 착륙에서 이륙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기내 기외의 청소, 손님들의 화물을 적재 하역하는 일들을 맡고 있다. 羽田空港은 당시 國際線만 일주에 200편이 넘어 착륙에서 이륙까지 20-30분, 짚을 때는 5-6분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내 청소, 화물의 하역 적재를 단시간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콘베아式 作業車가 航空機에 와서 접착되면 두명의 작업원이 화물창고로 들어가 엎드린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이 시작된다. 이 부자연한 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주어 腰痛症의 원인이 된다.

올림픽大會때는 國家의行事로 모두가 무리한 작업의 연속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무리가 올림픽 종료와 동시에 腰痛症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1-3년 근속한 2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다. 腰痛症의 상황을 조사한 勞働科學研究所의 小山內 박사(현 소장)는 「노동이 과거에 비하여 육체적 노동량은 감소되었으나 불량한 作業姿勢로서 機械의 속도에 맞춰 반복된 일을 하게 되면 허리 근육에 큰 부담을 주어 腰痛症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

다. 機械化는 작업하는 사람의 건강면에서 작업자세와 동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제 까지 腰痛症은 農夫나 炭礦夫에 많았는데 최근에는 運轉技士, 事務員까지 여러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業務上 疾病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外傷에 의한 腰痛症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육과 신경의 피로로 일어나며 분명히 老人性, 體質, 先天性奇型 등과는 다른데 業務上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1965년 某國策製紙工場에서는 여 자종업원 110명 중 33명에서 腰痛症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會社측은 물론 소관 근로감독국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공장은 집단발생하기 前年에 作業시스템을 바꾸었다. 즉 선자세에서 구부린 자세로 물건을 나르는 작업이 반복되게 되었고 운반량과 거리도 길어졌다. 또한 작업은 分業化되어 신체 일부만이 혹사됨으로서 腰痛症이 발생한 것이다. 그후 이들중 일부는 業務上으로 인정을 받았다.

두발로 걸어다니는 人間의 體重은 脊椎가 이를 지탱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무리한 자세로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근육으로서 지탱하지 못하는 힘이 이 脊椎에 걸리게 되면 椎骨과 椎骨間의 軟骨板 즉 椎間板이 어긋나거나 파손된다. 때로는 分離되는 수도 있다. 극도의 근육피로에서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을 일으킨다. 이것이 腰痛의 주요발생기전인 것이다.

生産性向上을 위한 機械化와 合理化로 인한 고정된 자세로서의 작업은 오늘날 모든 직업에서 腰痛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靜的疲勞는 서서히 진행함으로 발병과 노동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日本에서는 1964년 腰痛症의 労災認定基準이 개정되어 새로운 通達이 나오기 전까지 腰痛症은 거의 業務上으로 認定받지 못하였다. 1964년을 전후하여 日本에서 腰痛症이 多發한 것은, 각 공장마다 기술혁신에 의한 기계화의 도입으로 인간 본래의 몸의 자유스러운 운동을 제한하여 혹사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허리가 아파도 私病이라고 하여 자기 돈을 내어 치료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物理治療가 좋은지 알아도 받지 못하고, 증세는 점점 악화하게 된다고 腰痛症 환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腰痛症은 근육과 신경의 피로가 주요 원인으로 手術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뼈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받게 된다.

日本通運 東京支店에서는 350대의 화물차와 250대의 콘테이나 그리고 300대의 트럭이 쇠 새없이 움직이고 있다. 종업원 약 1,000명이 화물의 적재 하역을 하고 있는데 1950년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腰痛症 환자들이 격감하였다. 이것은 日本通運에서의 예방대책이 성과를 거둔 결과였다. 이 會社에서는 우선 매년 腰痛症이 있었던 종업원 15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作業의 定形化, 安全化, 能率化를 발전시켰고 (人間工學的研究開發) 아울러 體力訓練을 시킨 것이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現代人の 생활은 勞動에 있어 靜의이며 家庭生活에 있어서도 거의 몸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더욱 腰痛症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腰痛症의 최근 특증은 중량물을 들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되어 생기는 종래의 개념을 넘어, 이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트럭운전사나 조수, 사무원, 일반직장의 공원등 모든 직업에서 연령을 초월하여 일어나고 있으나 역시 전형적인 것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현장으로서 日本鋼管에서는 1,100명 근로자중 약 60%에서 허리에 등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량운반에 있어서 20kg의 무게를 마루바닥에서 들어 올릴때 허리에 걸리는 중량은 물체의

중량의 3배가 되는 60kg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國鐵의 電車修理工場에서는 과거 電車의 밑에 들어가 허리를 구부린 무리한 자세에서 일하던 것을 車體를 들어 올려 서서 일하게 됨으로써 腰痛症이 격감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腰痛症은 직접 간접으로 노동부담과 관계되며 작업자체와 방법 그리고 속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예방을 위하여서는 한 기업을 초월하여 연구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腰痛症이 多發한 후 日本에서는 腰痛對策委員會가 여러會社에서 勞使共同으로 설치되었고 行政에 있어서도 業務上에 관하여 補償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業務上으로서 취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腰痛症은 많은 경우 근육과 신경의 피로에서 오는 것임으로 自覺的 호소이외에 筋傳導에 의한 他覺的 검사방법도 개발되어야 한다.

腰痛症은 피로축적의 결과임으로 그 치료는 피로를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휴양, 영양, 적당한 전신운동등 규칙적인 생활이 유통예방의 관건이 된다.

日本의 큰 회사에서는 작업후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성과를 거둔 곳도 있다. 現代人은 體力이 저하되어 건강의 파탄을 가져오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지만 파탄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는 現代人. 보약이나 먹고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에 대하여 生活環境이나 作業環境을 올바르게 잡아주지도 못하고 있다. 腰痛의 발생도 말하자면 이 건강에서 벗어남으로서 오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작업전에 충분한 신체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체적 준비로서는 근육과 관절을 위하여 예비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작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세가 요통을 일으키나를 자기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腰痛症은 醫學의 分野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공장과 기업에 있어 모든분야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으로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